

인간관계와 사회시스템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

신 현 지	신 고 은	장 근 영	전 우 영 [‡]
삼성전자 DS 심리상담사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로부터의 배척 경험과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친구, 형제/자매, 어머니, 동료, 아버지, 연인으로부터의 배척이 관계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으로부터의 배척이 시스템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자신들이 인간관계보다는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더 크게 배척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계 유발 배척뿐만 아니라 시스템 유발 배척이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인간관계, 사회시스템, 배척, 심리적 통증, 우울, 불안, 외로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5S1A5A2A03050006)과 2017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의 청소년 자료는 201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인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중독과 자살생각'의 자료를 활용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23-2호, E-mail: wooyoung@cnu.ac.kr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있다 (Jensen-Campbell & MacDonald, 2011).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배우자와의 사별,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상처가 심리적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Baum, Lee, & Dougall, 2011; Knack, Gomez, & Jensen-Campbell, 2011). 따라서 심리적 통증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이 심리적 통증의 원인을 주로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그가 상호작용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Caruso, Vohs, Baxter, & Waytz, 2013).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사회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의 유형과 강도는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의 유형과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시스템이 모든 구성원의 요구를 동등한 정도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어떤 개인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개인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 결과, 한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이 배척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인간관계로부터 배척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Levine, Markus, Austin, Chen, & Miller,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가정한다. 하나는 인간관계로부터 유발되는 심리적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관계 유발 배척 경험과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두 종류의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척과 심리적 통증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Maslow, 1968).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소속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유용하다.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존재인데, 집단에 소속되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얻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왕따’라고 부르는 사회적 배척 현상은 학교나 직장 같은 우리와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에서 어

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Knack et al., 2011; Kurzban & Leary, 2001).

사회적 배척은 개인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 혹은 집단으로부터 거절, 무시, 따돌림을 당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개인의 욕구를 침해하는 경험으로 정의된다(Williams, 2007). Baumeister와 Leary(1995)는 사회적 배척을 거절, 비판, 소외, 무시, 외면부터 따돌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Leary, Kowalski, Smith와 Phillips(2003)는 특정 개인을 타인 또는 다수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관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관계가 손상된 경우 사회적 배척 경험을 할 수 있다(김남희, 2016).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타인 혹은 다수로부터 따돌림, 무시, 거절, 비판, 소외 등을 당하는 부정적 행동 경험들이 사회적 배척 경험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연, 2017). 그리고 Williams, Cheung과 Choi(2000)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의 공간에서 공을 주고받는 사이버볼 게임에서 배척을 경험한 조건의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다른 참여자들이 알지 못한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손상뿐만 아니라 가상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손상 역시 배척 경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인으로부터의 배척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통증을 유발한다. 통증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 또는 정서적 경험으로(American Pain Society, 1992), 사회적 배

척과 관련된 연구들은 관계의 단절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은 물리적 통증과 유사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MacDonald & Leary, 2005). Williams(1997)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 경험 때문에 유발되는 ‘거절’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유도하고, 심리적 통증을 야기한다(Williams, Bernieri, Faulkner, Gada-Jain, & Grahe, 2000).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척은 친밀감, 자존감, 사회적 상황에 대한 통제감,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위협할 수 있다(Williams, 1997).

그 결과,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Baumeister & Tice, 1990; Williams, 2001),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실감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도 증가한다(Shearer & Davidhizar, 1994). 또한, 사회적 배척 경험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우울, 무기력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을 경험할 수 있다(정수진, 2018). 즉, 사회적 배척 경험은 불안, 외로움, 우울과 같은 심리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배척 경험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집단이 더 높은 부정 정서와 더 낮은 긍정정서를 보고하였다(Ruggieri, Bendixen, Gabriel, & Alsaker, 2013; Wirth & Williams, 2009). 또한, Buckley, Winkel과 Leary(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행복감에 대한 긍정정서가 감소하고 슬픔, 분노 등의 심리적 통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척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야기

하기도 하지만 신체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유발한다. 이를 테면, 사회적 배척 경험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일컬어지는 코르티졸(cortisol)을 증가시키고(Gunnar & Quevedo, 2007),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사회적 시스템과 심리적 통증

사회적 배척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흑백 인종분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세상에 살고 있던 흑인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흑인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다. 즉 개인이 속한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특정 개인(예, 백인)에게는 우호적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개인(예, 흑인)에게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은 사회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인간 대 인간의 경험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이준엽, 2012).

Bronfenbrenner(2000)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 따르면, 가족, 친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가장 근접한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내는 지역사회, 대중매체, 지역사회 기관을 포함하여 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김교성과 노혜진(2008)의 연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실업 상태에 처

해있는 상황이 사회적 배척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진영(2004)과 Stewart(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척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시스템 때문에 사회적 배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시스템 유발 배척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배척에 대한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관계 맺는 대상으로부터의 ‘관계 유발 배척’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왔다. 즉,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 구조로 인해 유발되는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한편,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적 배척이나 정치적 배척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황혜인, 김연희, 이희선, 2018).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경제적 배척(Bhalla & Lapeyre, 1997)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정치적 배척(Bhalla & Lapeyre, 1997)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배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해왔던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척 경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

다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일차적으로 관계 맺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관계 유발 배척’과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계 유발 배척과 시스템 유발 배척이 심리적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배척 경험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201510-SB-028-01; 201908-SB-126-0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5분 이내였다. 청소년 자료는 2015년도, 성인 자료는 2019년도에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 179명(35.8%), 여자 321명(64.2%)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10대 173명(34.5%), 20대 성인 329명(65.5%)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관계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 연인으로 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고, 6문항 모두 관계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속해있는 단체, 살고 있는 도시, 국가(대한민국), 한국인(나를 제외한), 한국 사회,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 문화, 한국 교육, 한국 경제, 한국 정치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고, 이 중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 6문항이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으로 수렴되었다.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은 모두 7점 척도로 평정되었다(0=전혀 배척당하지 않았다, 6=매우 심하게 배척당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계 유발 배척 경험의 Cronbach's α 는 .830으로,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의 Cronbach's α 는 .947로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심리적 통증의 일환으로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진단 도구(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의 공존병리 척도 중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불안 척도 역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의 Cronbach's α 는 .893으로, 불안의 Cronbach's α 는 .704로 나타났다.

외로움. 심리적 통증의 일환으로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이 개발하고 김교현과 김지환(198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를 활용하였다.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 측정하고(예: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10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인 방향에 대해 측정한다(예: 나는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하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으며(0=전혀 그렇지 않다, 3=자주 그렇다), 긍정적 방향으로 측정된 10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로움의 Cronbach's α 는 .910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방법

관계 유발 배척 경험(예: 친한 친구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예: 한국 사회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문항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Bartlett, 1950). KMO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자료들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9이상이면 좋고, .8 이상이면 양호, .6~.7 이상이면 보통, .5 미만이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Kaiser, 1974). 요인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ML)를, 요인 회전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사각회전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수는 2개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며 RMSEA는 .05 미만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08 미만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10 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결 과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및 성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표본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912, $\chi^2(66)=4202.165$, $p<.001$. 요인구조 및 문항을 확정하기 위해 17문항(관계 유발 배척: 6문항, 시스템 유발 배척: 11문항)을 투입하였으며 해당 요인과의 요인계수가 낮거나 두 개의 요인에 중복되어 부하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표 1).

표 1.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전체)

	시스템 유발 배척	관계 유발 배척
1. 정부	.948	-.072
2. 정치	.932	-.100
3. 기업	.894	.006
4. 경제	.856	.052
5. 사회	.788	.158
6. 교육	.705	.105
7. 친구	-.031	.825
8. 형제/자매	-.068	.740
9. 어머니	-.075	.683
10. 동료	.167	.671
11. 아버지	.080	.564
12. 연인	.097	.520
초기 고유값	6.229	1.951
전체 변량 중 요인별 고유값의 비율 (2개 요인의 합 = 68.168%)	51.908	16.260
Cronbach's α	.947	.830

그 결과 관계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친구, 형제, 어머니, 동료, 아버지, 연인 6 문항이,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 6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20~.948의 범위였으며 2개 요인의 초기 고유값은 전체 변량의 68.1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포함된 2개 요인구조의 Cronbach's α값은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947, 관계 유발 배척 경험 .830으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으로 최종 선정된 문항들이 청소년 및 성인 각각

의 집단에서도 타당성이 확인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및 성인 각 집단에 대해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879, $\chi^2(66)=1530.290$, $p<.001$.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표본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910, $\chi^2(66)=2768.365$, $p<.001$.

분석 결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청소년의 경우 .399~.968의 범위였으며 성인의 경우 .576~.953의 범위였다. 두 개 요인의 초기 고유값은 청소년의 경우 전체 변량의 67.6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2), 성인의 경우에는 68.9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 요인에 포함된 2개 요인구조의 Cronbach's α값은 청소년의 경우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952, 관계 유발 배척 경험 .807, 성인의 경우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945, 관계 유발 배척 경험 .844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과 성인 모두 시스템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은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은 친구, 형제/자매, 어머니, 동료, 아버지, 연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청소년)

	시스템 유발 배척	관계 유발 배척
1. 정치	.968	-.134
2. 정부	.923	-.022
3. 경제	.886	.025
4. 기업	.815	.115
5. 교육	.790	.044
6. 사회	.761	.199
7. 친구	-.124	.884
8. 동료	.088	.789
9. 형제/자매	-.023	.709
10. 어머니	-.017	.584
11. 아버지	.129	.405
12. 연인	.128	.399
초기 고유값	6.407	1.708
전체 변량 중 요인별 고유값의 비율 (2개 요인의 합 = 67.625%)	53.388	14.237
Cronbach's α	.952	.807

표 3.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성인)

	시스템 유발 배척	관계 유발 배척
1. 정부	.953	-.085
2. 기업	.922	-.029
3. 정치	.915	-.082
4. 경제	.843	.061
5. 사회	.794	.149
6. 교육	.673	.135
7. 친구	-.007	.831
8. 형제/자매	-.079	.735
9. 어머니	-.089	.713
10. 동료	.184	.644
11. 아버지	.084	.613
12. 연인	.099	.576
초기 고유값	6.178	2.097
전체 변량 중 요인별 고유값의 비율 (2개 요인의 합 = 68.961%)	51.485	17.476
Cronbach's α	.945	.844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및 성인의 연령 집단에 따라 배척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12 혼합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의 연령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동료, 연인, 사회, 정부, 기업, 교육, 경제, 정치의 배척 경험을 집단 내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90)=0.081, p=.776$. 하지만, 배척 경험의 주효과, $F(11, 5390)=2.644,$

$170.917, p<.001$, 연령과 배척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 5390)=2.644, p=.021$. 추가적으로 어떤 배척 경험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가 나타났는지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육 부문에서 청소년과 성인이 경험하는 배척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499)=2.111, p=.035$. 즉,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교육 부문에서 더 높게 배척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성인의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관계 유발 배척은 청소년의 경우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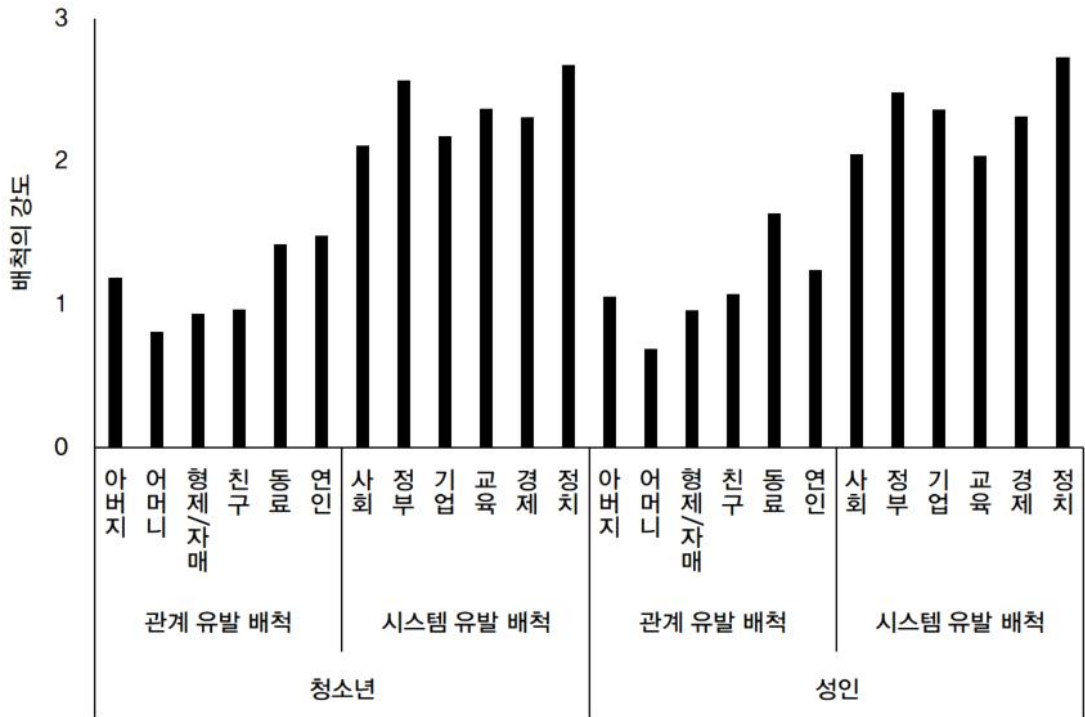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과 성인의 배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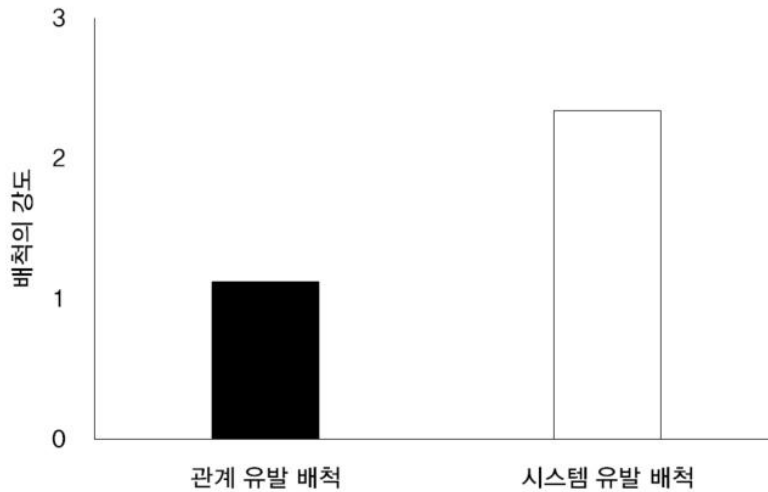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인($M=1.480$, $SD=1.700$), 동료($M=1.422$, $SD=1.381$), 아버지($M=1.192$, $SD=1.550$), 친구($M=0.965$, $SD=1.149$), 형제/자매($M=0.936$, $SD=1.206$), 어머니($M=0.809$, $SD=1.278$) 순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동료($M=1.638$, $SD=1.364$), 연인($M=1.245$, $SD=1.472$), 친구($M=1.079$, $SD=1.107$), 아버지($M=1.061$, $SD=1.533$), 형제/자매($M=0.963$, $SD=1.281$), 어머니($M=0.690$, $SD=1.185$) 순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 2460)=4.171$, $p=.007$.

시스템 유발 배척은 청소년의 경우 정치($M=2.676$, $SD=1.804$), 정부($M=2.570$, $SD=1.703$), 교육($M=2.370$, $SD=1.736$), 경제($M=2.312$, $SD=1.605$), 기업($M=2.179$, $SD=1.539$), 사회($M=2.110$, $SD=1.492$) 순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정치($M=2.732$, $SD=1.802$), 정부($M=2.486$, $SD=1.709$), 기업($M=2.365$, $SD=1.631$), 경제($M=2.316$, $SD=1.630$), 사회($M=2.055$, $SD=1.561$), 교육($M=2.046$, $SD=1.581$) 순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 2490)=5.151$, $p<.001$.

또한, 청소년과 성인이 경험하는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연령: 청소년, 성인) × 2(배척 유형: 관계 유발 배척, 시스템 유발 배척)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의 연령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동료, 연인에 대한 배척 경험의 평균인 관계 유발 배척 변인과 사회, 정부, 기업, 교육, 경제, 정치에 대한 배척 경험의 평균인 시스템 유발 배척 변인을 집단 내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과 배척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F(1, 500)=0.016$, $p=.898$,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500)=.075$, $p=.784$. 하지만, 배척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500)=414.785$, $p<.001$. 즉,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관계 유발 배척 경험(청소년: $M=1.134$, $SD=.989$, 성인: $M=1.113$, $SD=.991$)보다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청소년: $M=2.368$, $SD=1.479$, 성인: $M=2.333$, $SD=1.464$)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혼합변량분석에서 연령과 배척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때 청소년과 성인 표본을 통합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친구, 형제/자매, 어머니, 동료, 아버지, 연인으로부터의 배척 경험에 대한 관찰변인으로 '관계 유발 배척 경험' 잠재변인을 생성하였고,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으로부터의 배척 경험에 대한 관찰변인으로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잠재변인을 생성하였다. 또한, 외로움, 불안, 우울 관찰변인을 활용하여 '심리적 통증'이라는 잠재변인을 생성하

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계 유발 배척 경험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계 유발 배척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9, p<.001$. 또한,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 역시 심리적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eta=.241, p<.001$.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87)=527.585(p<.001)$, TLI=.876, CFI=.910, RMSEA=.101.

χ^2 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의 수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TLI, CFI, RMSEA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TLI, CFI의 경우 모두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지만, 그 이하는 명확하게 제안되는 기준치가 없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TLI, CFI의 수치가 .80이상일 때 보통의 적합도로 해석한 선행연구(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TLI에 대해 양호한 적합도, CFI에 대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RMSEA의 경우 .10이상으로 나쁜 적합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RMSEA에서 나쁜 적합도로 판명되었어도 TLI, CFI에서 양호한 적합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을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린 선행연구(권선중, 2014)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를 해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RMSEA에서 나쁜 적합도로 판명되었어도 TLI와 CFI를 통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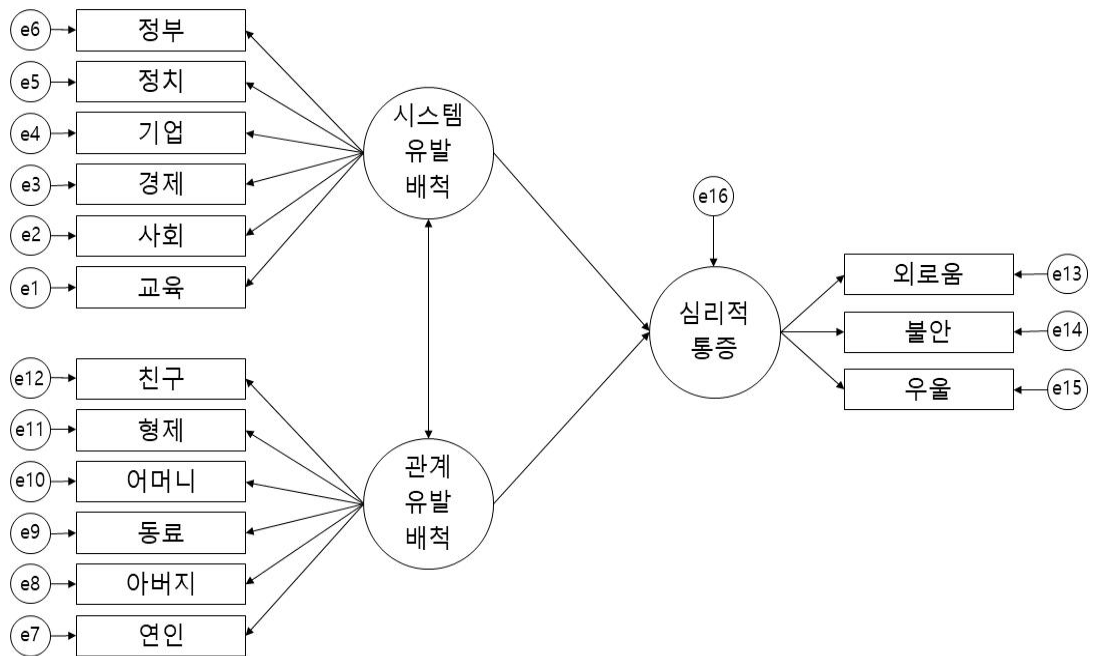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i>B</i>	<i>S.E.</i>	<i>β</i>	<i>C.R.</i>
전체 경로					
관계 유발 배척	→ 심리적 통증	.194	.032	.459	6.129***
시스템 유발 배척	→ 심리적 통증	.073	.019	.241	3.844***
관계 유발 배척					
관계 유발 배척	→ 연인	1.000		.579	
관계 유발 배척	→ 아버지	1.023	.097	.600	10.539***
관계 유발 배척	→ 동료	1.193	.095	.784	12.629***
관계 유발 배척	→ 어머니	.813	.078	.602	10.482***
관계 유발 배척	→ 형제	.937	.082	.675	11.437***
관계 유발 배척	→ 친구	1.001	.078	.805	12.761***
시스템 유발 배척					
시스템 유발 배척	→ 교육	1.000		.764	
시스템 유발 배척	→ 사회	1.071	.050	.875	21.530***
시스템 유발 배척	→ 경제	1.140	.052	.883	21.904***
시스템 유발 배척	→ 기업	1.142	.052	.895	21.925***
시스템 유발 배척	→ 정치	1.250	.058	.871	21.392***
시스템 유발 배척	→ 정부	1.228	.055	.904	22.260***
심리적 통증					
심리적 통증	→ 외로움	1.000		.687	
심리적 통증	→ 불안	1.163	.121	.603	9.589***
심리적 통증	→ 우울	1.517	.143	.883	10.638***

****p*<.001.

으로 고려하여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관계 내에서의 ‘관계 유발 배척’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내에서의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성인 표본 모두 친구, 형제/자매, 어머니, 동료, 아버지, 연인으로부터의 배척 경험이 관계 유발 배척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사회, 교육으로부터의 배척 경험이 시스템 유발 배척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이 심리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과 성인 모두 관계 유발 배척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로부터 경험하는 시스템 유발 배척 역시 심리적 통증

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 상황에서의 배척 경험이 삶의 만족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한 황혜인, 김연희, 이희선(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경험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배척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 사회적 측면에서 배척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각할 때에도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시민, 권익옹호, 환경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정치적 배척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삶의 만족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연희, 신황용, 이희선(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서의 배척 경험이 행복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화 이용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회적 참여에서의 배척 경험은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개인이 정치 혹은 정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정치적 참여에서의 배척 경험은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내에서도 심리적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까지 시야

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척 경험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구조 및 시스템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척 경험 역시 심리적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아우른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통증에 대한 개입을 위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 내에서의 개선도 함께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경제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배척 경험을 낮추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하거나 정치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배척 경험을 낮추기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대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황혜인, 김연희, 이희선(2018)은 국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목적을 둔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수립 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 경제, 정치와 같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 배척 경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 욕구충족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원획득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부문에서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배척 경험의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는 성적을 매우 중요시 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양은 상당하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약

54.4%는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공부를 가장 주된 고민으로 손꼽았다(통계청, 2015).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을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임을 감안할 때, 한국 청소년들이 교육 부문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교육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육 부문에서 10대 청소년과 20대 성인이 경험하는 배척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대인관계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관계 유발 배척’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 구조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시스템 유발 배척’에 모두 주목하여, 미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까지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 분야와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학, 사회복지학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문항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이 심리적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건강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계 유발 배척과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은 모두 스트

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계 유발 배척 또는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심리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Cohen, Kessler, & Gordon, 199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간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신체 및 심리적 문제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 측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원에 의해서도 신체 및 심리적 문제는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은 개인이 노력을 기울여도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Cankaya, Chapman, Talbot, Moynihan, & Duberstein, 2009). 따라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의 다양한 장면을 고려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 경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치로부터 시스템 유발 배척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치의 어떠한 측면이 시스템 유발

배척을 경험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계 유발 배척 및 시스템 유발 배척을 유발하는 다양한 장면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배척 경험을 유도했는지 파악한다면 실질적으로 심리적 통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로부터의 배척 경험이 ‘관계 유발 배척’ 경험을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으며, 출산을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 9백 명(-8.6%) 감소하였으며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8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여 관계 유발 배척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형제/자매의 요인이 타당하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권선중 (2014). 도박 관련 신념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 대한 재탐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단기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21(4), 359-376.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133-162.

김교현,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충남대학교)*, 16, 13-30.

김남희 (2016). 사회적 배척이 권력 추구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성차의 역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연희, 신황용, 이희선 (2012). 사회적 배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99-123.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박세연 (2017). 직장 내 배척 경험이 관계적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여고생의 공격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97-519.

이준엽 (2012). 고용형태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수진 (2018).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에 경향군의 도구적 정서조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15). 2015년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9). 2018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대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혜인, 김연희, 이희선 (2018).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105-132.

American pain society (1992).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ain in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nd Juvenile Chronic Arthritis(2nd ed)*. Glenview, IL: American Pain Society.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Statistical Section)*, 3, 77-85.

Baum, A., Lee, C. M., & Dougall, A. L. (2011). *Social stressors, social pain, and health*. In G.

- MacDonald, & L. A. Jensen-Campbell (ed). Social pain: Neuropsychological and health implications of loss and exclusion(pp. 193-21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0). Point-counterpoints: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165-195.
- Bhalla, A., & Lapeyre, F. (1997).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d Change*, 28(3), 413-433.
- Bronfenbrenner, U. (2000).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A. Kazdin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ankaya, B., Chapman, B. P., Talbot, N. L., Moynihan, J., & Duberstein, P. R. (2009). History of sudden unexpected loss is associated with elevated interleukin-6 and decreased insulin-like growth factor-1 in women in an urban primary care setting. *Psychosomatic Medicine*, 71(9), 914-919.
- Caruso, E. M., Vohs, K. D., Baxter, B., & Waytz, A. (2013). Mere exposure to money increases endorsement of free-market systems and social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2), 301.
- Cohen, S., Kessler, R. C., & Gordon, L. U. (1995). *Conceptualizing stress and its relation to disease*. In S. Cohen, R. C. Kessler, & L. U. Gordon (ed), *Measuring stress: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 3-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Gunnar, M., & Quevedo, K. (2007). The neurobiology of stress and development. *Annu. Rev. Psychol.*, 58, 145-17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ensen-Campbell, L. A., & MacDonald, G. (2011). *Introduction: Experiencing the ache of social injuries-An integr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social pain*. In G. MacDonald, & L. A. Jensen-Campbell (ed). *Social pain: Neuropsychological and health implications of loss and exclusion*(pp. 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nack, J. M., Gomez, H. L., & Jensen-Campbell, L. A. (2011). *Bullying and its long-term health implications*. In G. MacDonald, & L. A. Jensen-Campbell (ed). *Social pain: Neuropsychological and health implications of loss and exclusion*(pp. 215-2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urzban, R., & Leary, M. R. (2001). Evolutionary origins of stigmatization: The functions of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Bulletin*, 127(2), 187-208.
- Leary, M. R., Kowalski, R. M., Smith, L., & Phillips, S. (2003). Teasing, rejection, and violence: Case

- studies of the school shooting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3), 202-214.
- Levine, C. S., Markus, H. R., Austin, M. K., Chen, E., & Miller, G. E. (2019). Students of color show health advantages when they attend schools that emphasize the value of divers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13), 6013-6018.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slow, A. (1968).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humanistic psycholog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4), 685-696.
- Ruggieri, S., Bendixen, M., Gabriel, U., & Alsaker, F. (2013). Cyberball. *Swiss Journal of Psychology*, 72(2), 103-109.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hearer, R., & Davidhizar, R. (1994). It can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care Now*, 12(4), 60-65.
- Stewart, K. J. (2002). *Measuring well-being and exclusion in Europe's regions*. London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CASE053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illiams, K. D. (1997). *Social ostracism. In Aversive interpersonal behaviors* (pp. 133-170). New York: Springer, Boston, MA.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 Williams, K. D., Bernieri, F. J., Faulkner, S. L., Gada-Jain, N., & Grahe, J. E. (2000). The scarlet letter study: Five days of social ostracism. *Journal of Personal & Interpersonal Loss*, 5(1), 19-63.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 Wirth, J. H., & Williams, K. D. (2009). They don't like our kind': Consequences of being ostracized while possessing a group membership.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1), 111-127.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원고접수일: 2020년 8월 21일

논문심사일: 2020년 9월 1일

게재결정일: 2020년 9월 7일

Effects of Human Relations and Social Systems on Psychological Pain

Shin, Hyun-Ji Shin, Goeun Chang, Geun Young Chun, Woo Young
Samsung Electronics DS Dept. of Psychology, National Youth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olicy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valid items for measuring exclusion experiences from human relations and social systems, for adolescents and adults, and based on this, to determine how each exclusion experience impacts psychological pa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nd that exclusions from friends, siblings, mothers, co-workers, fathers, and lovers are valid items to measure the relationship-induced exclusion. It was also found that exclusions from government, politics, companies, economy, society, and education are valid items to measure the system-induced exclusion.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and adults perceive that they are more excluded from the social system than from human relations. It was also found that not only relationship-induced exclusion but also system-induced exclusion can cause psychological pain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loneliness. Finally, it is discussed that to alleviate psychological pa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uman relations as well as the system of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live.

Keywords: human relations, social systems, exclusion, psychological pain, depression, anxiety, loneliness